

2009년 초등학교 4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 어

() 초등학교 4학년 () 반 () 번 이름 ()

- ※ 문제지 6면에 30개의 문항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오.
- ※ 문제지에 학교명, 반, 번호, 이름을 정확히 쓰시오.
- ※ () 안에 답을 명확히 쓰시오.

1. ㉠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오늘은 바람이 무척 춡습니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였습니다.
“진호야, 공 잘 받아!”
영석이가 나에게 공을 ‘뽕’ ㉠ 춡습니다. 나는 공을 따라 얼른 뛰어갔습니다. 한참을 뛰어다니다 보니 우리들은 숨이 춡습니다.

- ① 손발이 몹시 춡습니다.
- ② 돌맹이를 멀리 춡습니다.
- ③ 손목에 시계를 춡습니다.
- ④ 사람들로 가득 춡습니다.

2.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

유림: 근우야, 우리 마을의 특색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우: 난 여름 방학에 떠날 여행지에 대해 조사하고 싶은데.....
유림: 넌 숙제했니? 내일 사회 시간에 발표해야 하는데.
근우: 아니. 그건 그렇고, 유림아 너는 우리나라 어느 곳을 여행해 보았니?
유림: 어유, 너랑은 말이 안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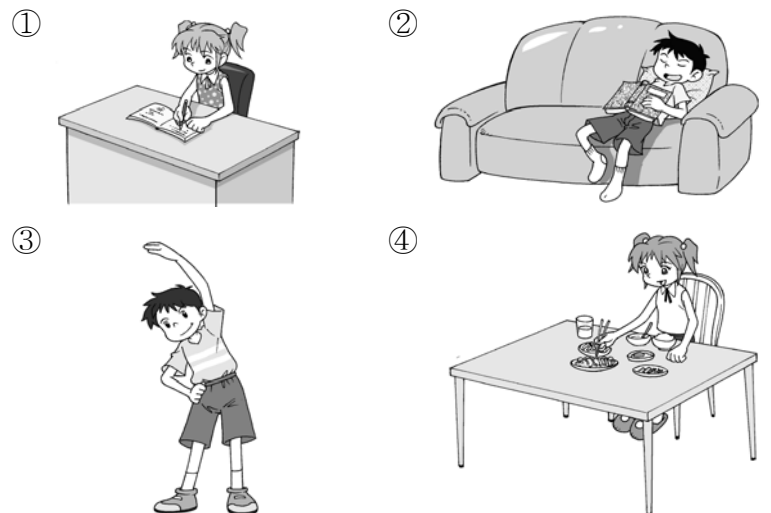
- ① 유림이가 혼자 대화를 이끌고 있어서
- ② 서로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지 않아서
- ③ 유림이가 사회 숙제에 대해 아는 체를 해서
- ④ 서로 상대방의 흥미와 관심을 생각하지 않아서

3. 시의 내용에 어울리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허리를 굽히면
햇살도 힘줄이
쥘금 당겨 오고.

몸통을 젖히면
바람도 등이
약간 꼬부라지고.

고개를 돌리면
하늘도 비잉
한 바퀴 돌고.



4. 다음 대화로 보아 철수가 읽고 싶어 할 책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철 수: 아버지, 선생님께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넌 무슨 책을 읽고 싶니?
철 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꿈과 관련된 책이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루고 싶은 꿈이 뭔데?
철 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 ① 유관순
- ② 피노키오
- ③ 선녀와 나무꾼
- ④ 신기한 실험 나라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자: 부모가 늙으면 산에 버려야 하는 풍습이 있던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산 속 동굴에 어머니를
 몰래 숨겨 놓고 날마다 음식을 가져다 드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 년: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오냐,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소 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날마다 어머니를 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해설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팔아 그 돈으로 조기를 사서 어머니께 구워
 드리려고 장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궁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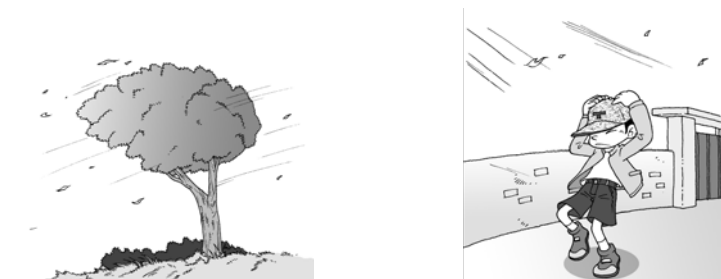
5. 소년이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 ① 어머니를 보고 반가워서
- ② 어머니께서 귀가 아프셔서
- ③ 어머니를 숨긴 것이 들킬까 봐
- ④ 아주 오래된 동굴이 무너질까 봐

6. ㉡을 통해 알 수 있는 소년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걱정이 많다.
- ② 효심이 깊다.
- ③ 남을 잘 믿는다.
- ④ 부끄러움이 많다.

7. ㉠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바람이 몹시 불었습
 니다.

㉠

나는 손으로 모자를
 꼭 잡았습니다.

- ① 그러나
- ② 그래서
- ③ 그런데
- ④ 왜냐하면

[8~1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고 온 친구들은
 신발장에 신발을 집어 넣으며
 내 하얀 운동화를 기억할까.
 누군가는 내 빈 자리에
 자기 신발을 살짝 얹어 놓으며
 나를 기억해 줄까.

새 교실 새 신발장에는
 내 자리가 없다.
 제일 꼬트머리
 아무도 봐 주지 않는 자리에
 슬쩍 올려놓은 내 신발이
 ㉠잘못 찾아온 손님 같다.

8. 위 시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가장 잘 관련 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하얀 운동화를 산 도희
- ② 제일 뒷자리에 앉는 수향
- ③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태경
- ④ 학교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나영

9. ㉠처럼 표현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학교를 잘못 찾아와서
- ② 전학 온 학교가 낯설어서
- ③ 학교에 손님이 찾아오셔서
- ④ 신발장에 신발을 잘못 넣어서

10. 위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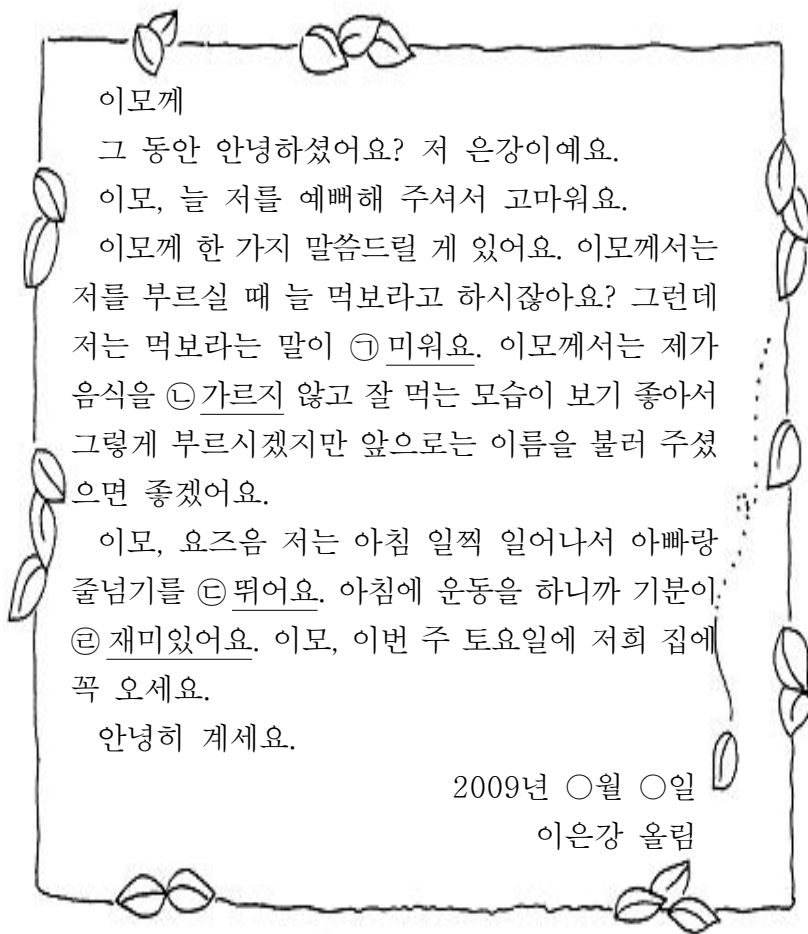
- ① 밝고 활기차다.
- ② 외롭고 쓸쓸하다.
- ③ 고요하고 평화롭다.
- ④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16. ‘누가’, ‘무엇을’, ‘하였다’의 순서로 낱말 카드를 놓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영희: 나는 나무를 심었다.
- ② 동민: 동생은 노래를 불렀다.
- ③ 주화: 과일을 삼촌이 드셨다.
- ④ 현준: 임금님이 사냥을 하였다.

[17~18] 다음 편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 위의 글에서 은강이가 이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② 토요일에 이모 댁에 놀러 가겠다.
- ③ 친구들이 이모가 예쁘다고 하였다.
- ④ 먹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 주면 좋겠다.

18. ㉠ ~ ㉣을 잘못 고쳐 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 - 싫어요. ② ㉡ - 가리지
- ③ ㉢ - 해요. ④ ㉣ - 감사해요.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그래서 개구리들은 자기들이 금강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까마귀한테 부탁하였습니다. 까마귀는 개구리들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만형 개구리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 (나) 만형 개구리는 봐도 봐도 더 보고 싶고 볼수록 더욱 아름다운 구룡연 골짜기의 풍경에 흠뻑 빠져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동생 개구리들이 기다리는 우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돌아갈 줄 모르던 만형 개구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대로 바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 (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우물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까마귀는 개구리들한테 우물 밖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라) ‘아니, 세상에 이런 멋진 곳도 있단 말인가!’ 깎아지른 절벽, 바위를 그러안고 싱싱하게 자란 소나무, 저 멀리 보이는 구룡연과 구룡폭포..... 얼마나 멋진 풍경인가!

19. ㉠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 ② 깎아지른 절벽에서 떨어져서
- ③ 여행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 ④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20. (가)~(라)를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알맞은 순서로 배열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다) - (나) - (가) - (라)
- ② (다) - (가) - (라) - (나)
- ③ (다) - (나) - (라) - (가)
- ④ (다) - (라) - (가) - (나)

21. 다음 ㉠과 ㉡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내가 ㉠ 물고기 ㉡
바다 속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	㉡
①	비록	이지만
②	만약	라면
③	결코	라면
④	반드시	이지만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덕제는 교실 바닥만 내려다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창수는 고소한 마음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엿습니다.
“덕제도 지각을 다 하네. 그 동안 잘난 체하더니......”
창수는 덕제를 시샘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창수가 줄곧 회장을 해 왔는데, 덕제가 전학 온 뒤부터는 덕제가 회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친구들도 덕제를 더 좋아하는 듯하였습니다.
“흥, 덕제도 별수 없군.”
창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덕제를 보며 우쭐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지각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 말에 덕제는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덕제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창수에게 왔습니다. 창수는 통명스럽게 말하엿습니다.
“무슨 일 있어?”
“너에게 도시락 좀 가져다 주라고 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전화하셨더라. 내가 네 집에 들러 도시락을 가져왔어.”
덕제는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창수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 “......”

22. ㉠을 높임말로 고쳐 쓰시오.
()

23. ㉡을 대신할 창수의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정말 이렇게 할 거니?
- ② 미안해. 널 오해하고 있었어.
- ③ 선생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줘.
- ④ 너 때문에 친구들이 날 싫어하잖아.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두들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한 여자 하인만이 먹는 시늉만 할 뿐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찹쌀도둑이 바로 하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따로 그 하인을 불러 내었습니다.
“다들 인절미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먹는 시늉만 하였느냐 ㉠ 혹시 내가 찹쌀을 훔쳐 갔느냐 ㉡”
“도련님, 용서해 주세요. 찰밥이 하도 먹고 싶어서...... 훔친 쌀로 계속 찰밥만 해서 실컷 먹었더니 인절미가 먹기 싫었습니다.”
“셋! 조용히 하여라. 이 일은 나밖에 모른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느냐?”
“도련님......”
도련님은 ㉢ 찹쌀을 훔쳐간 하인은 감격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24.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문장 부호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
- ② !
- ③ ,
- ④ .

2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도둑을 내쫓았습니다.
- ② 사또에게 알려 벌을 주었습니다.
- ③ 사건을 없던 일로 덮어 두었습니다.
- ④ 찹쌀 값의 두 배를 물게 하였습니다.

